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5일(화요일) 제2845호 www.metroseoul.co.kr

"한 장도 빠지면 안돼" 수능 문제지 전국 시험장으로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4일 문제지가 전국 시험장으로 일제히 배포됐다. 중부지역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들 너도나도 '역사 수문장'

토종·외국계 불문 문화재 보호 앞장·역사 인식 고취 활동 '붐'

국내 유명 기업들이 한국사와 사랑에 빠졌다.

토종·외국계 기업 할 것 없이 앞다퉈 역사 인식을 고취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사적 제193호)에서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을 했다.

이건호 은행장을 비롯한 약 90여 명의 자원봉사단원과 가족들은 동구릉의 역사를 되새기며 능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등 문화재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지난 5월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 본사가 있는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복구 이전엔 최근까지도 매주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숭례문의 역사와 가치, 복구 절차 등을 설명했고 특유의 외국어 실력을 발휘해 외국인에게도 안내 활동을 했다.

글로벌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70주 가까이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보수 지원·청정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3D 정밀측량 사업도 지원한다. 실제 문화재청과 대한지적공사는 지난달 1일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서울문묘와 성균관을 대상으로 측량을 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3D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도 문화재 지킴이로 활약 중이다. 스타벅스는 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소의 대표적인 고궁 야간 체험 문화행사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를 2009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이 행사는 문화계 유명 인사를 초청해 고종 황제의 연회 및 휴식 장소였던 덕수궁 정관헌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주제별 강연을 하는 방식이다.

혜민 스님,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교수 등 스타 작가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일부 기업은 국사 지식을 인사는 물론 승진의 기본 스펙으로 강조하고 있다.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험 격인 인·적성검사(HMAT)에 역사에 대한 소양과 사관을 평가하는 문제를 낸 바 있다. 당시 검사에선 '고려·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그의 업적을 설명하고 이유를 쓰시오'와 '세계의 역사적 사건 중 가장 아쉬웠던 결정과 자신이라면 어떻게 바꿨을지 기술하라'는 2개 문항 중 하나를 택해 짧은 에세이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열린 경영회의에서 "역사관이 뚜렷한 직원이 자산을 회사를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차를 판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문화도 같이 파는 것이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GS칼텍스 역시 인사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두고 있다.

라이엇게임즈 구기향 홍보팀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업이 역사와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채널 역할을 하면서 고객과의 친정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an@metroseoul.co.kr

패스트푸드 배달원 1000명 으슥한 밤길 '파수관'으로

회사 추천·심사과정 거쳐 전용배지 달고 범죄 감시

어두운 골목을 누비는 패스트푸드 배달원 1000명이 늦은 밤 여성 안전 지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근무 태도가 성실한 도미노피자·맥도날드 오토바이 배달원 1000명을 '마을 파수관'으로 임명해 범죄 감시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미 두 회사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배달원 1000명을 파수관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게 된다.

마을 파수관은 어두운 골목길 등 안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등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주요 임무다.

또한 파손된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을 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e메일로 알린다.

서울시가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근무 태도가 성실한 도미노피자·맥도날드 오토바이 배달원 1000명을 '마을 파수관'으로 임명해 범죄 감시에 나선다. /뉴시스

시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시장 표창, 서울시 장애지원센터 입주와 창업자금 대출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학교 입학 지원 등의 혜택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hj@

도산 선생이 손수 만든 '옥중 공예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옥중에서 직접 만든 공예품이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됐다. 흥사단은 4일 도산 선생이 1930년대 대전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제작한 지승공예품 합 1점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뒤늦게 문재인 부른 검찰

'대화록 미이관' 참고인 통보 - 민주 "수사 끝난 상황에 정치적 꼼수"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예결위 종합 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디리정책연구원 창립심포지엄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의원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

문 의원 측은 "출석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하겠다"며 "(검찰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이 문 의원을 부르려고 했다면 진작 불렀어야 한다"며 "이미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에 부른 것은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준기자 mjk m@metroseoul.co.kr

박 대통령,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메디프르관에서 열린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간 ... 창조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미래 신산업과 문화 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세 분야에서 한국 경제인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기황후'의 역사 왜곡

기자 수첩
박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MBC 월화 사극 '기황후'를 시청하면 본 방송에 앞서 '고려 말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황후가 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실제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방영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을 의식해 제작진이 사극에서는 이례적으로 넣은 문구다.

이 드라마는 제작진의 우려와 달리 지난달 28일 2회 방송에서 시청률 13.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로 출발했다. 드라마는 확실히 재미있다. 빠른 전개, 화려한 영상미, 배우들의 열연까지 만족스럽다.

그런데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수록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를 더욱 떨치기가 어렵다. 고려 정벌을 펼치는 등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갈린 기황후를 미화시킨다는 점에서다.

얼마 전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설문 자료에서는 중고생의 47%가 역사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역사 지식을 얻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역사 교과서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역사 바로잡기에 열심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 시점에서 더욱 걱정이 되는 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됐을 때다. 재미있다고 눈감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황후의 이름을 바꿔 다른 가상 인물로 내세웠다면 좋은 작품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뉴스 & 뉴스

지방대 출신 5급 채용 확대…추가합격선 완화

내년부터 지방대 출신 인재의 공직 채용이 확대된다.

4일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지역 인재를 비롯한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의 채용을 늘리는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14년과 2015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 5급 공채 기준 합격 예정 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지방 인재에 대한 추가 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 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조현정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협상 타결…오늘 업무 복귀

●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 13일 만에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병원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사는 임금 1.3% 인상, 정액 월 1만5000원 인상, 위험수당 월 3만원 인상 등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준해 합의했다.

안철수 의원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수사 제안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 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새누리, 부동산 활성화 '야당 설득' 주문

"법안통과 위해 정부 나서야"

새누리당이 4일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드려야 한다"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탄력적으로 수용해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2+1'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서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주요 입법 사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 증축 리모델링, 주택 바우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김민준기자

'이석채 도운 혐의' KT 임직원 줄소환

이석채 KT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KT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전날 임금 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를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임원 4~5명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에는 3년간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심모 상무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 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혐의, 사이버 MBA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김민준기자

본드 빰친 '토익 부정행위 첩보작전'

첨단장비를 총동원한 토익(TOEIC)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토익 고득점자의 답안을 외부로 유출해 다른 수험생에게 전파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30)씨와 이모(31)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답안을 유출한 엄모(27·대학생)씨를 구속했다. 부정시험으로 만점을 받은 취업준비생 등 응시생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전문가인 이씨 등은 최근 4차례 토익시험에서 평균 970점(990점 만점)을 받은 대학생 엄씨를 한 번 시험에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섭외했다. 엄씨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그 안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전촬영장치를 설치한 뒤 답안지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로 전송했다.

같은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 12명은 귓속에 넣은 지름 2㎜ 크기의 초소형 음향수신장치를 통해 답을 전달받았다. 부정 행위 덕에 한 취업준비생은 990점 만점을 받기도 했다. /조현정기자 hj@

첨단장치를 동원한 새로운 수법의 토익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왼쪽부터 토익답안지를 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깁스 안에 설치한 휴대전화, 정답을 전달받는 데 사용된 초소형 음향수신장치, 답안지 촬영 전송장치.

술·담배에 찌든 30男·20女

다른 연령대비 건강관리 미흡…성인 30% 비만·25% 고혈압

30대 男·20대 女 건강관리 실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건강생활 실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30대 남자는 금연, 절주, 신체 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체 성인 남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흡연율은 54.8%로 성인 남자 흡연율(43.7%)보다 11.1%포인트 높았으며 고위험 음주율(25.4%), 신체 활동 부족률(52.5%),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율(14.5%), 비만 유병률(40.6%)도 전체 성인 남자보다 더 높았다.

20대 여자는 흡연율(13.6%), 고위험 음주율(9.2%), 스트레스 인지율(45.5%)이 전체 성인 여자보다 높았고 영양 부족(24.8%), 에너지·지방 과잉(7.9%)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요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추이를 살피는 결과 흡연율은 1998년 이후 남자는 감소 경향(1998년 66.3%→2012년 43.7%)인 반면 여자는 증가 경향(1998년 6.5%→2012년 7.9%)을 보였다.

또 남자 21.8%, 여자 6.0%는 고위험 음주자이며 신체 활동 부족은 2005년 이후 증가 경향(2005년 31.5%→2012년 53.2%)이었다.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2000㎎ 이하)보다 남자는 3배, 여자는 2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4명 중 1명은 고혈압,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영양 조사는 흡연율·음주율 등 600여 개 보건 지표를 산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 통계조사로 1998년 처음 실시된 이래 16년째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4일과 5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 행태와 삶의 질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배 부르면 덜 주워" 물까치의 가을 포식 : 홍가상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사흘 앞둔 4일 대전 유성구 가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물까치가 감을 쪼아 먹고 있다. /뉴시스

교통위반 단속 전담 계약직 150명 모집

서울시가 이달 27일~12월 3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모집한다.

시는 4일 "채용된 이들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격일제로 하루 8시간 내외 근무하며 총 근무 기간은 5년 이내지만 근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1200만원 정도의 연봉이 지급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제공된다.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객관식 50문항), 면접을 거친다. /김민준기자 mkim@

겨울 이불 덮는 초가집 :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수목원의 초가집 지붕 위에서 공원 직원들이 새 볏짚으로 엮은 이엉을 올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원구 '무료학원수강 협약'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학원연합회와 함께 6일 오전 11시 구청에서 '무료 학원 수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등 400명이다.

문의 02)2116-3651

양천구 '청년반상회' 후원

서울시 양천구는 8일 오후 7시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양천구 청년반상회'를 개최한다. 양천구가 후원하고, 소셜벤처협동조합 S.COOP(에스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에스쿱(010-5259-0757)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발표

1916년 11월 5일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을 확장해 일반화한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시간과 공간을 고정된 틀로 여겼던 뉴턴 물리학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그로부터 3년 후 일식 때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빛이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해 입증됐고 아인슈타인은 일약 세계적 물리학자로 지명을 얻었다.

'법원 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원스톱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이 법원의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서비스와 연계해 제작·발송 및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4일부터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 시행한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봉투에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행정전자소송과 특허전자소송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게 됐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www.metrohk.com.hk 2013年10月31日 星期四 metro

▲向偵探求助的父母多因缺乏時間管教及關心子女，令子女欠缺家庭溫暖。(資料圖片)

母親反映：「鬼祟接電話，又經常改手提密碼，仲成日要錢。」家長出錢招偵探調查，但女兒離奇仍有錢用，衣著性感穿熱褲，甚至購置名牌。父母委託偵探調查，才赫然知道女兒透過網上討論區結識廿多歲男子援交去街，以此賺錢，幸好及早發現，雙方還沒有性關係。

內地

metro Sweden

Granne klättrade över b att stoppa musik

얼마나 시끄럽길래! 음악 끄려 옆집 잠입

스웨덴에서 옆집의 시끄러운 음악을 끄기 위해 5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이웃집에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39세의 이 남성은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옆집으로 넘어가 스테레오의 코드를 뽑고 노래가 꺼지는 순간 그의 집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전에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metro Italy

Il Papa twetta "Grazie"

프란체스코 교황 팔로어 수 1000만 돌파

프란체스코 교황의 트위터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대중들과의 만남에서 "소중한 팔로워들이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황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취임한 교황은 전임 교황들에 비해 개방적이며 친근한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etro France

…café Cactus, les langues …rangères se défient

외국어 다 모여! 이색 카페 인기

프랑스 툴루즈에서 다양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Le Cactus(선인장)'라는 이 카페엔 100여 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띈다. 카페에 온 이유에 대해 한 학생은 "나는 헝가리인이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2개 국어 모임을 갖는 에리로끔은 "2006년 우린 영어로 대화를 갖기 위해 12명 정도가 모였다. 하지만 지금은 16개 이상의 언어로 늘어났고 2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영어 테이블엔 두 명의 스코틀랜드인과 일곱 명의 프랑스인이 앉아있다. 이들은 "영어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 카페에 오게 됐다. 아직 원어민처럼 말하는 수준은 못 되지만 카페에서의 대화를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탄불에서 온 나딤은 카페에 대해 터키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좋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왔다. 이곳에서 우린 언어 교환을 하며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어로 말할 대화자를 찾거나 새로운 언어의 기초를 닦기 위한 사람들도 보인다. 그렇게 카페의 70%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로 가득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2개국어 걸피'는 새롭게 도시에 정착한 외국인을 위해 지역 투어나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마이테스 최크레오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자녀 뒷조사' 흥신소 성업중

비행청소년 늘자 학부모들 '사립탐정 고용' 붐 · 마약·원조교제 등 의뢰내용 90% 사실 '충격'

최근 홍콩에서 흥신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자녀들의 비행을 감시하려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홈즈국제탐정회사는 지난 7~8월 여름방학 기간에만 100여 건의 의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 비행을 적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립탐정을 통한 자녀들의 '뒷조사'는 새로운 '자녀 보호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홈즈국제탐정회사의 원센난(文森南) 조사관은 "지난해 약 300건의 자녀 감시 의뢰를 요청받았다"면서 "특히 지난 3개월간 많은 안건들은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의뢰인의 80%가 자녀의 마약 복용 및 원조교제 사실을 의심했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의뢰 내용의 90%가 결국 사실로 밝혀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청소년 탈선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센난 조사관은 얼마 전 의뢰받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경우를 예로 들며 "스마트 탈선"에 대해 설명했다. "용돈을 주지 않는데도 아이가 값비싼 명품 옷을 구입하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부모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원조교제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탐정기관에 자녀 감시를 의뢰한 홍콩 가정은 모두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양육을 대부분 가사도우미가 전담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족의 온정을 느끼지 못한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꾸리기에 급급한 부모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흥신소를 통한 자녀 보호가 능사는 아니다"며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기 전에 가정에서 좀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겨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다·조선비기자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25.17 (-14.25)	533.64 (-1.93)	2.87 (+0.03)	1063.20 (+2.20)

뉴스&뉴스

30대그룹 직원 10년째 두배↑

●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2000년 69만9000여 명에서 지난해 123만2000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4.8%로 임금근로자 증가율 2.4%의 2배를 기록한 것이다. 또 지난 12년간 종업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이고, 매년 종업원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전경련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상위 30위까지 종업원 수를 분석한 '30대 그룹 종업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00년 69만8904명에서 2010년 105만6497명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23만2238명으로 증가했다. /이세근기자 les@

동양사태 재발방지안 마련

● 금융 당국이 동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동양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뱅가드 "韓주식 괜히 팔았네"

● 세계적 상장지수펀드(ETF) 뱅가드가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을 대거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7000억원은 더 벌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 주식을 처분한 뱅가드펀드는 한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최대 경쟁사 블랙록에 비해 올 하반기 현재 신흥시장 ETF 수익률이 1.27%포인트(7427억원)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들어 한국이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안전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윤한홍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인쇄인	김종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32-2100
독자센터	02)721-9805

2005년 11월 24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034

80%가 A…기업 신용등급 '인플레'

동양그룹 사태 등 회사채 시장의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신용등급 A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회사채 시장의 기능이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국내 3대 신평사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가 부여한 국내 기업의 회사채 등급을 조사한 결과, AAA~A등급에 자리하는 비중은 평균 78.7%로 집계됐다.

한신평의 A급 이상 비중이 82.6%로 가장 높았고 나이스는 80%였고 한기평은 74%로 나타났다. 반면 B등급의 비중은 나이스 20.0%, 한기평 24.0%, 한신평 16.3%에 불과했고 CCC 이하 등급의 비중은 3개사 모두 1~2%에 그쳤다.

이는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분포와 확연히 차이 난다.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A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BBB등급(25.8%)의 비중이 가장 컸고 BBB~B등급의 전체 비중은 62.6%였다. /이국명기자 kmlee@

해외 세일즈 뛰는 보험사 CEO들

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타깃 잇단 방문

주요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까지 발 벗고 나서 '해외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고 보험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지난달 25일 중국 충칭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올해 초 동부화재가 지분 15%를 인수한 안청손해보험의 화유성 대표이사와 회동을 갖기 위해서다.

김창수 삼성화재 사장은 오는 12월에 중국을 방문해 현지 자동차보험 판매 현황과 현지 영업 환경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의 중국 사랑은 남다르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중국 시장 공략 포인트는 자동차보험이다. 자보험이 중국 손해보험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2005년 중국 진출 초기에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판매했었다. 삼성화재는 '한·중·일 CEO 교류회'도 적극 활용해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도 해외 영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부회장은 이달 태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타이삼성생명'을 둘러볼 계획이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역시 지난달 미국 보스턴과 뉴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해외 신규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사장은 "보험·은행·증권 등 금융권을 통틀어 지금도 코리안리의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국내시장은 한계가 뚜렷해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날로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사 CEO들조차 해외 영업 현장에서 세일즈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d@metroseoul.co.kr

점자달력 5만부 나눠드려요 한화그룹은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달력 5만부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올해 배포하는 2014년 사랑의 점자 달력은 오는 20일까지 한화사회봉사단 홈페이지(welfare.hanwha.co.kr)에서 신청을 받아 12월에 배포된다. /한화 제공

증권사 소송액만 무려 5600억원

증시 침체로 영업 부진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연달아 소송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62건으로 소송액만 무려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소송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44건(27.16%)으로 가장 많았다.

불완전 판매는 최근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권할 때 투자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행정 사법 제재 사항에 대한 항소 건이 12건(7.41%)이었으며, 주관사의 기업 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 문제가 각 7건(4.32%)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62건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기업 실사 부실 등 증권사의 의무 이행 부실로 발생한 소송 건수는 합쳐서 51건이었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교보증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21건), 대신증권(13건), NH농협증권(12건), 우리투자증권(11건) 등의 순이었다.

소송액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증권(688억원), SK증권(676억원), 신영증권(605억원), 미래에셋증권(559억원) 등의 순서로 금액이 컸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직간접 투자 문화의 확산에 따라 향후 증권 관련 소송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금융소비자 단체 중심의 주주 행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카드 연회비 0원~200만원 해외 갈 경우 거의 없다면 국제브랜드 카드 1장 적당

자신의 소비 패턴과 카드 사용액 등을 꼼꼼히 따져 보면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4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의 연회비는 0원, 2000원, 5000원, 1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카드사별로 브랜드별로 다양하다.

보편적으로 국내 전용의 경우 5000원,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의 경우 5000원이 추가되면서 1만원 선이다. 여기에 항공 시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주는 제휴카드는 연회비가 추가된다. 혜택이 추가되면서 연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해외에 갈 일이 없다면 국내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 소비자가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만큼 국제 브랜드는 1장 정도만 비상용으로 보유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한은행의 유어스카드나 비씨카드의 글로벌카드의 경우 추가 연회비 없이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글로벌카드의 경우 지난해 말 259만장에서 올 10월말 392만장으로 발급매수가 50%가량 증가했고, 신한 유어스카드도 같은 기간 수십만장 추가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연회비와 카드 사용액, 혜택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나일론 버금가는 혁명"

효성 세계 첫 개발

효성이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을 개발해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품의 성공은 효성이 쌓아온 화학 분야 연구 개발과 생산 노하우로 이룬 쾌거"라며 "유해 가스를 원료로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소재라는 점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폴리케톤은 나일론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고분자 신물질로, 기존 산업 소재에 비해 내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월등히 뛰어나 부품 산업을 주도할 핵심 소재로 꼽힌다. 특히 일산화탄소(CO)를 주원료로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과 일본 업체도 폴리케톤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생산기술 확보가 어려워 제품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반해 효성은 지난 10여 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효성은 국내에 133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27건의 관련 특허 출원과 등록을 마친 상태다.

효성은 향후 201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5만t 규모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1조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ksept@

우상선 효성기술원 사장이 4일 서울 [illegible]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소재 개발 상용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짜폰 양산 부추긴다

집중진단 '휴대폰 보조금'

제조사 판매 장려금 등 포함… "제재 못해 법제화 필요"

<글 싣는 순서>
①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②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③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④[르포]현장에서 일하는 실상은
⑤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만의 책임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27만원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후 방통위는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용자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에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지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철폐 이후, 이통시장은 보조금 시장과열로 인해 마케팅비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통 3사 연평균 매출(17조8600억원)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조8300억원으로 21.5%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2조1500억원의 연평균 매출에서 마케팅비 비중은 6조900억원으로 27.5%로 늘었다. 두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은 24.0%인 4조2900억원 증가한 반면, 마케팅비는 58.9%인 2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시장과열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시기 및 구입장소, 가입형태별로 차별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12년 하반기 '갤럭시 S3'의 보조금은 7월에 11만7000원이었던 것이 9월에는 38만4000원까지 올라가는 최대 26만7000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온라인의 경우, 대리점 등 일반 유통망에 비해 최대 3배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제조사업자도 책임 함께해야

이통 사업자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동의한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자신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한 모든 골매를 이통 사업자들만 맞기에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통사만이 아닌데 화살은 자신들에게만 날아온다는 것.

실제 소비자가 제공받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체 수익을 고객에 일부 제공하는 보조금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돈을 받는 마이너스폰이 생기고, 공짜폰이 양산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왜 이통사만 제재하는 것일까? 이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에만 해당된다. 막상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추진,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단통법 추진은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결국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가 아닌가"라며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하기 위한 보조금 법제화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1403@metroseoul.co.kr

'말의 해' 연하장 나왔어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우편 연하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인프라 '감성품질' 입힌다

용인에 디자인센터 오픈

두산인프라코어는 4일 경기도 용인 두산기술원에 디자인센터를 오픈했다. 디자인센터는 총 면적 1500㎡(455평) 규모로 스타일 스튜디오와 컬러 연구실과 모델 작업장, 목업(mock-up) 스튜디오, 실내 품평장, 자료실 등 종합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첨단 시설을 갖췄다.

디자인센터 설립은 기술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뿐 아니라 디자인에서 나오는 감성 품질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내 중장비 업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디자인센터에서는 굴착기, 지게차, 휠로더, 대형트럭(ADT) 등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디자인팀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레드닷, iF, 전염 등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디자인센터는 사용자 의견과 감성을 충분히 담은 디자인을 추구하고, 두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LG전자 임직원 자녀에 수능 응원선물

LG전자(대표 구본준)가 오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임직원 자녀 응원에 나섰다. LG전자의 각 사업본부장 및 CQO, CTO 등 경영진은 수능을 앞둔 임직원 자녀 1500여 명에게 응원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선물세트를 전한다. 카드와 선물세트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각 가정에 순차적으로 배달된다.

이번 이벤트는 임직원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LG전자는 10월 중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다.

선물세트에는 화장지(문제를 '잘 풀라'는 의미), 찹쌀떡('꼭 붙어라'는 의미), 초콜릿, 사탕 등을 담았다.

카드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LG전자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라는 경영진의 응원 메시지를 적어 수능 성공을 기원했다.

/김태균기자

KT "주파수 매각 사실 아냐"…논란 지속

이석채 회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의 KT가 이번엔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논란에 휩싸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KT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KT SAT) 김영택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KT 광화문 사옥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사에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궁화 3호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으나 기술 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억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고 부인했다.

김영택 부사장은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할당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위성도 민영화된 KT의 자산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매각 시 법 절차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 시점 논란, 계약에 관여한 임원의 해임 논란 등이 새롭게 불거지며 더 많은 의혹만을 남겼다.

최근 국감에서 KT의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논란을 공개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 역시 "KT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거짓 꼼수 해명이 난무했다"고 비난했다.

/이재영기자

다음 맞춤형 수능 정보 제공

감지를 재빠르게 움직이면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포털 다음은 수능시험 진행 과정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수학능력시험 검색 스페셜'(http://search.daum.net/수능)을 운영한다.

이용자들이 다음 검색과 모바일 다음 앱에서 '수능'이라고 검색하면 수능시험 전에는 시험 일시, 유의사항, 기출문제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수험생들의 피로 해소 및 건강을 챙겨주는 도시락 레시피 등 수능에 관련 종합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한다.

또 수능시험 당일에는 각 교시가 종료될 때마다 영역별 정답지 및 수능 관련 뉴스를 제공해 수능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능이 종료된 오후 5시부터는 수능 문제지·정답지, EBS 수능해설방송 관련 정보, 수능배치표, 실시간 등급컷 등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illegible]

<지뢰제거·매복탐지·공격력>

3박자 갖춘 무인장갑차 만든다

현대로템 제품 개발중··· 2020년 전력화 목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무인장갑차 개발에 나선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현대로템은 차세대 다기능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무인장갑차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아직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의 장갑차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다기능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3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지뢰 탐지·제거 기능이다. 장갑차 앞에 마련된 장비를 이용해 지뢰를 탐지하고 이를 장갑차 내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매복 탐지 기능이다. 장갑차를 고정시킨 후 가운데 위쪽에 장착된 탐지장비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의 동향을 감지해 내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면 수색병이 나설 때보다 인명 살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적진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 기능이다. 중기관총을 장갑차 상부에 탑재하고 이를 내부에서 조종할 수 있으므로, 사격병이 외부로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대(對)전차용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아파치 같은 공격헬기와도 대전할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아직은 시제품 개발 단계지만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관건은 국방부에서 언제 이 제품을 전력화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자동차 기술이 상용화에 근접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는 것은 만의의 사고에 대비한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차세대 장갑차도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완벽한 안전성을 갖출 때까지 계속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장갑차와 탱크 등의 방산장비와 고속열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첫날에 상한가(3만8750원)를 기록하면서 IPO(기업공개)를 위한 공모가(2만3000원)에 비해 68.5%나 높게 마감해 주목을 끌었다. /[illegible]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유·무인 장갑차. 오는 2020년쯤 전력화된다는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직장인 98% "이직 유혹"

이유는 낮은 연봉 '첫 손'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이직 유혹에 흔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9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의 유혹에 흔들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98.2%에 달했다.

이직을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낮은 연봉'(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문화'(22%)를 거론한 직장인도 많았다.

이직으로 기대하는 연봉 상승폭은 '1000만원 이상'(24.8%)이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원'(22.5%)이 뒤를 이었다.

헤드헌터에게 이직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61.2%나 됐다. 직장인의 마음을 흔드는 헤드헌터의 제안으로는 연봉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 분위기(18.3%), 근무지 위치(5.1%), 고용 형태(7.1%)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는 "연봉 상승만을 바라보고 이직을 했다가 문화, 인간관계 등의 원인으로 퇴사를 고려하는 직장인도 적잖다"며 "특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일부 헤드헌터의 필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illegible]

SKT 분실폰 찾기 서비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잠그고 현재 위치를 알아보며 스마트폰에 담긴 각종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를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매출은 삼성··· 영업익은 애플

3분기 IT업계 실적분석

전 세계 IT기업 중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IT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다음으로 애플·IBM·MS·구글 순이었다.

매출 면에서 삼성전자는 59조800억원을 기록해 애플 40조2200억원보다 18조8600억원 많았다. 이는 지난 3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애플을 크게 앞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지난 2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2.9% 대 15.6%였지만, 3분기 35.2% 대 13.4%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반해 영업이익 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순위가 바뀌어 애플·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인텔·구글 순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10조7600억원의 영업을 올린 반면, 삼성전자는 10조1600억원이었다. 그러나 양사의 영업이익 차이는 계속 줄어 2011년 4분기 15조4300억원, 2012년 1분기 11조7200억원가량의 차이가 올해 1분기 5조1700억원, 2분기 9500억원 등으로 줄어졌다.

또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MS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5위에 올라섰다. MS는 34.2%, 애플 26.8%, 인텔 26.0%, 구글 23.1%, 삼성전자 17.2%였다. /[illegible]

"주택 거래 전년보다 30~40% 늘어날 것"

취득세 영구인하 8·28 소급 적용 — 시장 반응과 전망

6억 이하 물건 문의 늘어나… "장기적 활성화 글쎄"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기대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하나만으로는 신규 주택의 구매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활성화 전략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은 8·28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6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현재 1주택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줘야주기로 했다. 6억~9억원은 현재와 같이 2%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으로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30~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시 적용된 취득세 감면이 6월 말 종료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6월 9034건에서 7월 1912건, 8월 2789건으로 급감했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을 담은 8·28대책이 발표되면서 9월 4198건, 10월 7475건으로 다시 늘어난 바 있어서다.

실제로 취득세 소급 적용 소식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강남구 개포동 새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취득세 적용 시기 때문에 매매 시점을 망설였던 대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며 "연내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과 맞물려 6억원 이하 물건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1%포인트만으로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마찬가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부동산 관계자는 "30억~40억원씩 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4%에서 3%로 줄어든 것만으로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로부터 전화가 몇 건 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 /뉴시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의 분위기가 장기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시적이 아닌 영구 감면이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데다 취득세 감면액보다 향후 집값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과 같은 관련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8·28대책 이후 취득세 소급 시점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지켜보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내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종료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영구 감면이라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기는 어렵겠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됐을 때 나타나던 거래 절벽과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강남 블루칩' 분양 큰 장

대형 건설사 이달 6619가구 공급

이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범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지난 1일 삼성물산이 '래미안 대치 청실' 모델하우스를 연 것을 시작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이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1월 강남 4구에서 총 7개 단지 6619가구(일반 분양 3746가구)가 공급된다. 시공 순위 1위의 현대건설을 포함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구성돼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교통, 학군 등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데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업계들이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전용면적 85㎡ 또는 분양가 6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에 이어 이달 중순 강동구 천호동에서 '래미안 강동팰리스'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5㎡ 총 999가구로 구성됐다.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C1-1블록에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490가구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101~149㎡ 490가구로 이뤄졌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C1-2블록에서 전용면적 90~115㎡ 495가구 규모의 '위례2차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 파크'를 분양한다.

또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를 내놓는다. 총 408가구 중 전용면적 114㎡형 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박선옥기자

◆11월 대형건설사 강남권 분양 물량

시공사	지역	브랜드명	전용면적(㎡)	총가구수(일반분양)
삼성물산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청실	59~151	1608(162)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	59~155	999(999)
현대건설	송파구 장지동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101~149	490(490)
대우건설	송파구 문정동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84~151	999(999)
대림산업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59~176	[illegible]
GS건설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59~114	408(86)
현대산업개발	송파구 장지동	위례2차 아이파크	90~115	495(495)

* 상기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각 업체

에버랜드 '미리 크리스마스' … 판타지 축제 3일 개막 에버랜드는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판타지 축제를 오는 8일 개막한다. /에버랜드 제공

증권업계 "부동산임대펀드 눈돌릴때"

증권가에서는 바닥을 친 부동산 시장이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다만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펀드를 추천했다.

강승민(사진 왼쪽) NH농협증권 연구원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은 바닥권에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회복 속도는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며 주택 가격은 내년 4~5월쯤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상위(오른쪽) 동양증권 연구원은 "여야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에 합의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올해 연말쯤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기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2~3년간 주택 가격이 11~15%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강승민 연구원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폭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려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셋값이 비싼 상황에서 전세 공급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셋값은 현 고공행진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정상위 연구원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점차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임대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34%였는데 올해엔 37%까지 올라온 상황이며 앞으로도 월세가 느는 반면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펀드를 유망하게 봤다.

이날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0억원 이상 부동산 펀드 12개 중 7개가 연초 이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강승민 연구원은 "부동산 임대료는 현 수준이거나 오르고 부동산 임대 수익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리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

게임 하면서 수학 배워요

학과수업에 첫 도입

게임이 학교 수업에 들어왔다. 정규 과목 이해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 시범수업'이 4일 수원 정명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게임의 순기능 확산과 기능성게임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과학습용 게임을 기획, 개발, 보급까지 시행한 첫 사례다.

이날 공개된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은 과학과 수학 학습용 기능성게임 '스팀 챌린지'와 '수학의 왕'으로 수업의 전 과정을 PC와 스마트 태블릿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성훈기자 zen@

"3D프린터로 제조업 창업 돕겠다"

IT Cafe

우주인→벤처인 변신 고산

100만~200만원 제품 선봬
서울 세운상가에 둥지 틀고
산업역군 선후배 연결할것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씨가 자신이 만든 3D 프린터(크리에이터블)로 출력된 결과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꿈꿨던 고산(37)씨가 벤처인으로 변신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3D 프린터 사업에 도전했다.

고산 대표가 설립한 3D 프린터 업체인 크리에이터블랩스(Creatable Labs)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조만간 신제품인 '크리에이터블 1'을 출시할 예정이다.

3D 프린터는 물건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비견될 정도로 산업계의 거대한 새 물결로 여겨진다.

최근 외신을 통해 건물 설계를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프린터 기계가 알아서 시멘트를 바르며 건물을 완성해가는 놀라운 광경이 전해지기도 했다. 생명체의 조직 세포를 쌓아서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조직을 생성하는 바이오 프린터 기술도 첨단 3D 프린터 영역에 속한다.

고 대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고가의 제품이었던 3D 프린터가 이제 가정용 데스크톱 제품으로 양산될 만큼 보편화됐다"며 "3D 프린터와 같이 산업 제조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제조 창업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으므로 이 기술을 서둘러 국내에 도입해 한국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크리에이터블랩스는 100만~200만원대의 보급형 3D 프린터 제품을 선보인다.

고 대표는 "3D 프린터로 복잡한 조형물에서부터 예술 작품까지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며 "과거 개인용 컴퓨터(PC)나 인터넷이 보급될 때처럼 3D 프린터의 확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스트라타시스 등의 업체가 선도하는 3D 프린터 시장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바짝 추격하고 나서는 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크리에이터블랩스의 구성원도 독특하다. 미국 영화사인 루카스필름의 3D 그래픽 작업 담당자를 포함, 미 과학업계의 반도체 공정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의 인재가 합류했다. 고 대표가 2011년 2월부터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창업지원기관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통해 모인 인재들도 함께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메카인 종로구 세운상가에 둥지를 튼 점도 한국 제조업 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고 대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고 대표는 "세운상가는 한국 제조 창업에서 상징적인 장소"라며 "아직도 제조업 쪽의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사장시키지 말고 산업 역군 선배와 미래의 후배를 연결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블랩스는 한국인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중국 상하이 등을 돌며 전 세계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창업대회도 연다. 올해로 3년째인 이 대회의 이번 1~3등 수상자는 한국에 초청해 다시 한 번 우승자를 가린다. /지완희기자 @metroseoul.co.kr

스마트폰으로 '관상' 터치터치

얼굴운세·사주 앱 다시 주목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이 현대인이라면 관상가 대신 스마트폰 '관상' 앱에 의지했을지 모른다. 이 작품이 대종상 영화제에서 6관왕을 휩쓰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얼굴 운세와 사주 관련 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상 앱은 카메라의 얼굴인식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관상을 봐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이목구비를 인식해 관상 결과를 알려준다. 무형무형엔터테인먼트의 '얼굴인식관상' 앱, 과거 KTH의 '푸딩얼굴운세' 앱이 대표적이다.

관상으로 커플 궁합을 봐주는 앱도 있다. 지난 9일 출시된 넥스트INC의 '관상: 얼굴인식 관상궁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라이프스타일 분야 상위권에 올랐다. 이 앱은 연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궁합 관상 점수를 낸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운세'와 인크루트의 '인크루트 무료 운세'는 각각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에게 특화된 앱의 관상을 알려준다.

모바일 전용 블로그 '네이버포스트' 오픈

네이버가 모바일 전용 블로그 서비스 '네이버포스트'를 오픈했다.

네이버포스트는 이용자들이 직접 포스트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포스트가 한 권의 책처럼 완성되는 서비스다. 누구나 자신만의 지식과 노하우, 감성을 포스트 시리즈로 연재하면서 포스트작가가 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유사한 서비스이지만 무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네이버포스트에서는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포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PC 에디터 '포스트에디터(post.naver.com)'를 작가들에게 지원하며 독자들은 포스트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 관심 포스트를 구독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의 입체적 소비를 위해 검색과 지도 등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 레버리징을 강화했다.

예컨대 포스트를 보다가 첨부된 지도를 클릭하면 지도 앱이 연동돼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연락처를 누르면 바로 전화 통화로 연결된다. /박성훈기자

SINGAPORE AIRLINES

호주행 항공권 10% 할인 창이공항 환승 혜택 푸짐

싱가포르항공은 오는 22일까지 자사 홈페이지(www.singaporeair.com)를 통해 호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시 최대 1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애들레이드, 퍼스, 다윈 왕복 항공권은 105만3000원(1인 요금 기준, 세금·유류할증료 포함)부터 판매되며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왕복 항공권은 109만47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여행 가능 기간은 2014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외 올해 2014년 3월까지 싱가포르항공 또는 자회사인 실크에어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환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20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항 내 환승 터미널에 위치한 모든 상점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를 여행하는 승객은 싱가포르 내 3성급 호텔 1박을 43싱가포르달러(2인 1실 기준, 1인당 요금)부터 즐길 수 있는 '싱가포르 스톱오버 홀리데이'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755-1226 /황재용기자

카페·호텔…책 읽을 곳 수북

가을 유통가 '독서 마케팅' 한창

할리스 첫 라이브러리매장 열고 롯데호텔제주 로비도서관 조성 저자초청 '북투어 패키지' 손짓

최근 인터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독서 관련 상품의 판매량은 전달에 비해 45% 증가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살찌우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

이 같은 니즈를 반영해 유통업계가 가을의 낭만과 감성을 전하는 '독서(讀書) 마케팅'을 한창 벌이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최근 교보문고와 손을 잡고 북카페 콘셉트의 테마 매장인 '합정역점'을 오픈했다.

할리스커피 합정역점은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홍대와 합정 거리의 특성을 반영, 책 읽기 좋게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꾸몄다. 매장에는 인문·사회·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책 500여 권이 배치돼 있으며, '교보문고 추천 이달의 도서' 코너 등을 통해 매장 방문객들에게 매달 베스트셀러와 신간을 제공하고 있다.

할리스커피 마케팅팀 정창윤 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책과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벌써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롯데호텔제주는 올 겨울까지 '책과 휴양이 있는 호텔'을 콘셉트로 로비와 수영장 곳곳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베스트셀러 저자들과 함께 특별한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북 투어 패키지'를 선보인다.

지난달에는 전 KBS 아나운서 손미나와 함께 파리 여행기를 들으며 세계 각국의 와인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신현림, 구원의 작가 등을 차례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도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을 위한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신개념 라이브러리 카페도 눈길을 끈다.

신도림 디큐브백화점에 있는 디큐브 비즈니스센터 '카페 큐브'는 강사, 저자, 프리랜서 등 재충전이 필요한 도시인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멤버십 카페다.

경영·경제 전문 서적뿐만 아니라 수필·소설 등 다양한 책을 갖추고 있어 멤버십에 가입하면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 및 업무를 볼 수 있다. 커피·차 등 간단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csw@metroseoul.co.kr

여심흔들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순정남 로비!

ROBBIE 오종혁

the wedding singer

뮤지컬

웨딩싱어

2013. 11. 26 - 2014. 2. 9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김도현 오종혁 배기성 방진의 송상은 최우리 오승준 육현욱 정순원 외

the wedding singer

프로듀서 박용호 연출 최성신 안무 김영범 음악감독 이유나 제작 뮤지컬해븐 CJ E&M 주관 더스테이지 협찬 BC Loun.G 문의 02 744 4033

BOOK by Chad Beguelin and Tim Herlihy MUSIC by Matthew Sklar LYRICS by Chad Beguelin

BASED upon the New Line Cinema film WRITTEN by Tim Herlihy

'하늘 황금루트' 날아 도쿄여행 무료 기회

한국공항공사 '김포~하네다' 취항 10주년 홍보원정대 모집

10년지기 친구들과 우정 여행,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 사회생활 10년차 직장인들의 일탈 여행. '10주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10주년을 기념해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30일 취항 10주년을 맞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애용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 원정대'를 모집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0주년과 관련된 사연을 공모, 10명의 하네다 원정대를 선발해 도쿄 자유 여행의 기회를 준다. 선발된 원정대에게는 김포~하네다 노선 왕복 항공권과 소정의 여행 경비(2박3일 기준)를 지급한다.

이들은 팀(2인 1조)별로 자유롭게 도쿄 도심을 누비며 자신만의 여행 루트를 SNS에 소개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5일 출정식 이후 도쿄로 동시에 출국해 하네다공항을 견학하고 하네다공항이 제공하는 도쿄만 크루즈도 무료로 탑승하게 된다.

16일까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10주년과 관련된 사연, 본인의 SNS 운영 현황 등을 한글 파일로 제출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20일 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및 페이스북(facebook.com/airport.korea)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공항공사 허태윤 마케팅운영본부장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3년 김포국제공항에 국제선 하늘길을 다시 열었던 노선이어서 이번 취항 10주년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홍보원정대 이벤트가 10주년 기념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서울역 – 20분 – 김포공항 – 2시간 20분 – 하네다공항 – 20분 – 도쿄역

뉴스&뉴스

'좋은느낌' 웰빙 기획상품 동남아여행 쿠폰 행사

● 유한킴벌리가 좋은느낌 꾸비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좋은느낌 웰빙라인 기획 상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동봉된 쿠폰 번호를 페이스북(www.facebook.com/ykgoodfeel) 이벤트 탭에 입력하면 1등 당첨자 1명에게 동남아 여행 상품권 2매를 증정한다. 또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영화 예매권 2매를 선물한다. 당첨자 발표는 27일.

로가디스 스마트 슈트 모델 현빈 팬사인회 진행

● 제일모직 남성복 브랜드 로가디스가 스마트 슈트 출장 100만유 기념해 브랜드 모델 현빈의 팬사인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인회는 13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5층 로가디스 매장에서 사전에 선정된 100명의 팬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0일까지 로가디스 홈페이지와 제일모직 페이스북, 제일스토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을 코끝 '장미의 유혹'

로맨틱한 향수 신제품들

상큼한 여름 향수를 대신할 로맨틱한 향을 찾을 때다. 올가을 은은한 장미 향을 담은 '신상' 향수가 잇따라 출시돼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마르니는 장미 향의 프리미엄 향수 '마르니 로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불가리아 장미 오일의 관능적인 향에 풍부한 '로즈 앱솔루트'가 더해진 향수다. 향수 패키지는 대담한 무늬와 색상 등을 조합해 새롭게 연출했다. 병 모양과 무늬는 마르니 정통 향수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병뚜껑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꿨다.

끌로에의 '로즈 드 끌로에'는 장미를 갓 잘랐을 때 채취한 로즈 다마시나 에센스를 주원료로 사용해 한층 신선하고 섬세해진 것이 특징이다.

실버 탑과 투명한 병이 고급스러운 유리 보틀을 핑크 컬러 리본으로 단장해 여성스러우면서 우아한 멋을 한껏 살렸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롯데피트인 한류매장 오픈

복합쇼핑몰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이 4일 한류 관문 매장 '위드드라마(with DRAMA)'를 열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매장에서는 싸이를 비롯해 슈퍼주니어, 카라, 빅뱅, 소녀시대 등 유명 K-팝 스타는 물론 장근석, 최지우 등 한류스타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알래스카 훈제연어' 안방 상륙

7일 롯데홈쇼핑 통해 판매

수인 코퍼레이션은 오는 7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오즈데이 알래스카 자연산 훈제연어'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오즈데이 알래스카 자연산 훈제연어는 수산물 청정 해역인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를 사용해 알래스카 자연이 주는 깨끗함,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셰프 박찬일 등 전문가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해 연어 고유의 맛을 온전히 살리면서도 한국인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최적의 레시피를 개발했다. 특히 수원효를 해마다 6~8월 알래스카로 회귀하는 100% 자연산 연어만을 사용하고, 유럽 전통의 너도밤나무 훈연 방식을 채택해 맛과 향의 깊이를 더했다.

오즈데이 알래스카 자연산 훈제연어는 샐러드용과 스테이크용 2종류이며, 데리야키 소스 등 직접 개발한 다양한 소스를 함께 선보인다.

문의 www.ozday.co.kr 1577-7280 /박지원기자

구이메뉴는 '반값'…양념메뉴는 '1+1'

강강술래 10일까지 알뜰외식족 위한 파격 혜택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녹이고 알뜰외식을 지원하는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홍대점은 오는 10일까지 한우모둠구이, 한돈양념구이 등 모든 구이 메뉴를 50% 할인 판매한다. 인기 메뉴인 술래양념, 돼지양념 등 포장상품도 1+1 행사를 통해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상계점과 늘봄농원점은 7일까지 매장에서 소고기 구이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유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무료로 포장해준다.

시흥점도 8일까지 술래양념구이와 한돈양념구이를 시키면 각각 동일한 메뉴를 인분 수만큼 포장해 증정한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e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서는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선물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리마당에 글을 올리면 암 예방, 노화 억제, 피부 미용,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피로 해소, 담배 억제 기능을 가진 20년 전통의 녹차 명가 (주)보성그룹의 국내 최초 유기농 보성녹차 음료세트(30캔)를 무료로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선물

60세 이상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환자 대상 무료수술 캠페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받아 삶의 질 향상 도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 고령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발생률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무릎관절 역시 노화를 피할 수 없으며 그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무릎관절 노화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현재 많은 노인들이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무릎통증 유발하는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로 해결

무릎뼈의 연골이 노화 혹은 외상 등의 이유로 점점 닳아 없어져 발병하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중기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또 말기에 이르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무릎이 붓고 심지어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0%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말기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상태로 약물을 이용한 치료나 주사를 이용한 치료 등을 통해 회복하기란 이미 늦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환자에게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최대 고민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관절 대신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해주는 수술법이다. 인공관절의 종류는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시행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수술 이후에는 2~3주가량의 입원 기간이 필요해 별도의 입원비와 간병비 등이 추가로 든다. 즉 수술 전후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만일 건강보험에 가입돼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무료로 인공관절을 선사하는 '엄홍길휴먼재단'

이처럼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어도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나 보호자가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3050 남성 '엉치뼈'가 위험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다발… 통증땐 조기 치료를

최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병원을 찾는 젊은 3050세대 남성들이 늘고 있다.

연예인 박시연, 김경호 등이 앓고 있어 유명해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고관절 질환의 약 7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30~50대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다.

이 질환은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이 차단돼 뼈가 썩는 병으로 쉽게 말해 '엉덩이뼈가 죽는 병'이다. 초기에는 디스크로 오해할 수 있지만 고관절과 엉덩이 등에 통증이 심해지고 걸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는 천공술과 골이식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의 관절을 살려 사용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중 근육과 힘줄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절개술'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 최소절개술은 기존 15~20cm였던 절개 부위를 8~10cm로 최소화하는 수술이다. 외회전근을 자르지 않고 밀어젖혀 공간을 마련한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합병증과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근육과 힘줄이 안정적으로 인공관절을 지지할 수 있어 탈구 발생률이 낮다.

웰튼병원 송상호 원장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는 질환을 디스크로 오인해 고관절 질환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최소절개술 등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주사 한방이면 자궁경부암 거의 100% 예방

'여성암 사망률 2위' 잡는 HPV 백신 알고 계세요?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52만9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여성암 중 사망률 2위에 달하는 질환이다.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은 HPV(Human papilloma 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인데 지난 여름 일본 후생노동성은 HPV 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접종으로 채택한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갑자기 적극 권고를 중단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이 확대 해석되면서 HPV 백신에 대한 불안 현상이 생겼다. 이에 송석우 강남로앤산부인과 원장의 도움말로 HPV 백신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알아봤다.

◆HPV 백신 안전성, WHO도 인정

일본에서의 이슈 이후 6월 세계보건기구(WHO),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접종자 데이터 분석 결과 HPV 백신이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5600만 회 정도가 접종됐는데 접종자에게서 보고된 이상 반응은 전체 백신 접종분의 0.035%에 불과해 HPV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상 반응이란 백신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모든 사건이 해당되는데 이상 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백신 접종의 일반적 면역반응

모든 백신은 이상 반응을 수반하는데 HPV 백신도 마찬가지다. 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등의 국소 반응과 가려움증, 발열, 오심 등의 전신 반응이 있는데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 면역 반응이다.

◆HPV 백신의 질환 예방 효과

수백 종의 HPV 중 HPV 16, 18번이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 원인이며 HPV 백신은 HPV 16, 18형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거의 100% 예방한다. 그중 4가 HPV 백신(가다실)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HPV 16, 18형으로 인한 외음부암 및 질암을 100% 예방하고 남녀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한다.

현재 대한부인종양학회는 한국인의 첫 성경험 연령을 고려해 성경험 이전인 만 15~17세를 최적 HPV 백신 접종 연령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HPV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실시하는 호주에서는 접종 시작 후 고등급 자궁경부 병변은 74%, 생식기 사마귀는 92.6% 감소했다.

◆HPV 백신 접종 시 주의할 점

백신 성분에 대해 민감하거나 이전에 HPV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접종 전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백신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으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운 단체 접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상처없는 '튼튼 미니레이저디스크 시술'

절개 필요없는 시술로 30분만에 허리고통 탈출
1박2일만에 퇴원 가능해 직장인들도 부담없어

은행의 하이힐을 신고 방문 고객을 안내하는 이모(27)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다. 곧바로 병원을 찾은 그녀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요추 4~5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바쁜 사회생활로 시간 낼 틈도 없고 미혼인 탓에 몸에 상처 생기는 것도 꺼렸던 그녀는 쉽게 수술 결정을 하지 못해 계속 수술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술과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안양 튼튼병원을 찾았다. 안양 튼튼병원에서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국소마취하에 약 30분간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을 받고 지긋지긋한 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시경 통해 직접 병변 관찰하며 디스크 제거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직경 3mm의 기느다란 관에 1mm의 초소형 내시경과 미니 레이저를 장착한 후 허리 환자에 꼬리뼈에 삽입해 디스크 병변으로 접근한 후 레이저를 이용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시술은 의사가 고화질의 동영상 모니터로 병변을 관찰하면서 환자와 대화하며 증상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술 효과를 신속하고 빠르게 알 수 있으며 피부 국소마취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취 부작용이 있거나 마취 두려움이 있는 환자들도 시술을 통해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다.

◆피부 국소마취로 부작용 걱정 없어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기존 디스크 제거술과 달리 1박2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며 회복 시기도 1~2주 정도로 매우 짧다.

특히 수술 시에는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만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시술을 진행해 수술 후 흉터가 생기지 않으며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뼈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수술 부위 유착이 적다.

시술은 요통이나 한쪽에 치우친 하지통이 있는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게 적절하며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통증이 심할 때 더 효과적이다.

임대철 안양 튼튼병원 병원장은 "만성 통증을 방지해 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며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수술 후 흉터도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비쁜 20대에서 90대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염이나 과거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시술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안양 튼튼병원 임대철 병원장이 진료하는 모습(사진 위). 국소마취하에 진행되는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출혈이 적고 흉터가 남지 않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대학병원 '무료 건강강좌의 계절'

어지럼증·뇌졸중·암 주제 이달 전문의 강의 줄이어

대학병원들이 11월을 맞이해 다양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먼저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호텔 1층 컨벤션센터에서 '잦은 어지럼증, 원인과 치료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최익수 서울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질환에 따른 치료법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전정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에서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강좌가 열린다.

건강강좌에서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송태진 교수) ▲뇌혈관에 좋은 음식(강병진 영양사)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최종인 물리치료사) 등의 강연이 진행되며 강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다과와 뇌졸중 안내 책자 및 스트레칭 밴드 운동기구가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오는 14일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다시는 걸리지 않기'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조비룡 가정의학과 교수가 ▲암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생활 습관 ▲암 재발 방지 및 이차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강의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감기 걸렸다' 싶을 때 바로 복용해야 효과

감기약 안전한 사용 수칙

감기는 초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 하나다. 감기에 걸리면 당연히 감기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흔한 약이라 오히려 복용 상식에 대해 소홀하기 쉽다. 이런 가운데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카페선 어퍼어다 약학과 교수와 함께 '안전한 감기약 복용을 돕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조기에 복용하되 일주일 이상은 복용 말아야

감기 증상은 보통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개선된다. 푹 쉴 수 없거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조기에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열만 나는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보다는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진통제'만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 감기약은 증상이 개선되면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단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면 끝까지 복용해야 하고 만약 일주일 이상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종합감기약은 성분 따져보고 복용

콧물, 기침,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은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대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는데 종합감기약은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성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대부분이 진통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약을 과다 복용을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항히스타민제가 없는 감기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복용 중이라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감기약 먹어야

감기약을 비타민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약의 효과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복용할 때 가장 잘 발휘된다. 음료수나 차의 '단닌' 성분은 약물을 흡착해 약효를 떨어뜨리고 우유 등에 함유된 칼슘은 감기약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 물론 카페인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커피, 홍차 등도 자제해야 한다.

교수는 "따뜻한 물과 신선한 과일·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습도와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막연히 참기보다는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정호빈 선배와 격투신 전까지

"액션 두려움 없었다

내일 개봉하는 '동창생' 첫 주연맡은 최승현

촬영중에 흘린 피는 나의 것
영화 80% 담담 대역없이 소화
팀 내에선 장난기 가장 심해요
새노래 분위기 전투적 하하하

영화 '동창생'의 개봉(6일)을 앞두고 만난 최승현(26)의 오른손 손등에는 지름 3cm 정도의 길다란 흉터가 짙게 남아있었다. 액션신을 촬영하다가 강화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그는 "바빠서 흉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도 "영화가 잘되면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겠다"고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여동생 구하려는 남자간첩

이 영화는 남파 공작원인 북한 소년 리명훈(최승현)이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위험한 살해 지령을 수행하면서 여동생 리혜인(김유정)과 같은 반 친구 이혜인(한예리)을 지키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첫 주연을 맡아 전체 분량의 80% 이상을 연기한 최승현은 총격신, 오토바이 추격신, 격투신 등 고난도의 액션신을 직접 소화하면서 매력의 최대치를 발산한다.

"극중 정호빈 선배와 치열하게 격투하는 장면에서 깨진 유리잠에 묻은 피는 진짜 제 것이죠. 어쩐지 액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겁내면 스태프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죠."

영화를 보면 매신 최선을 다한 최승현의 노력이 그대로 읽힌다. 액션신을 위해 지난 몇 개월간 새벽마다 일어나 연습했다고 했다. 특히 빅뱅 월드투어와 병행해야 해 국내와 해외를 바쁘게 오가며 무려 1년이나 촬영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때가 살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원톱 영화라 어깨가 무거워요. 관객들이 보면서 그저 고생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영화가 뒤늦게 개봉된 게 아쉽다. 촬영 기간이 늘면서 비슷한 소재를 다룬 김수현 주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먼저 개봉돼 좋은 장면들을 꽤 편집해야 됐다고 말했다.

◆상 많이 받으며 자신감도 생겨

또래와 다르게 퍽나 진지하고 책임감이 남달라 보였다. 주목받는 신인 연기자로서 한 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큰 듯했다.

2010년 드라마 '아이리스'의 김선로 연기 데뷔한 최승현은 소년 파도범을 연기한 영화 '포화 속으로'로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을 받으며 아이돌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일찌감치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상을 많이 받으면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됐어요. 대신 시야도 넓어져 더욱 자신감도 갖게 된 계기였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어요."

남다른 책임감은 빅뱅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팀의 맏형이라 힘든 일이 있어도 멤버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삭이는 편이라고 했다. "일할 때는 다섯 명 다 예민하기 때문에 나까지 긴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팀 내에서 내가 가장 장난이 심하다"고 털어놨었다.

◆국내에 두번째 솔로 발표

첫 주연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최승현은 이달부터는 가수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달 중순께 일본에서 빅뱅 돔 투어에 돌입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두 번째 솔로 싱글을 낼 예정이다.

신곡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전투적인 분위기로 담은 자작곡으로, 이미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다.

"빅뱅 월드투어와 영화 촬영 때문에 한동안 한국 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빅뱅도 2년 전에 낸 게 마지막이죠. 혹여나 주변에서 '신비주의다' '나태해졌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어요. 어서 빨리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노래 분위기가 전투적이죠. 하하하."

빅뱅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판권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팔렸다. "K-팝뿐 아니라 K-무비 열풍이 부는 데 조금이라도 한몫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동우(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쓰리데이즈'로 안방 컴백

박유천이 내년 2월 방영될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가제)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그는 남자 주인공인 엘리트 경호원 한태경 역으로 출연을 확정 지었다. 이 드라마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전용 별장에 내려갔다가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실종된 대통령을 찾아 사건을 추적하는 경호원의 이야기를 그린다. '싸인' '유령'의 김은희 작가와 '뿌리깊은 나무' 신경수 PD가 참여한다.

'탑기어 코리아' 새시즌 MC

가수 겸 배우 알렉스가 케이블 채널 XTM 자동차 버라이어티쇼 '탑기어 코리아' 새 시즌(10일 첫 방송) MC를 맡는다.

알렉스는 소문난 자동차 마니아로 기존 MC인 김진표, 데니안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작진은 "김진표가 직접 360도 롤러코스터를 자동차로 돌았던 것처럼 새 시즌에도 계속된 도전으로 지난 시즌을 넘는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발라드곡 '편지'로 11일 컴백

여성 듀오 다비치가 11일 신곡 '편지'를 발표한다.

다비치의 히트곡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를 작곡한 전해성이 쓴 '편지'는 3월 출시한 2집에 수록하려다가 가을에 어울린다고 판단해 아껴둔 곡이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쿠스틱 기타 선율, 시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발라드다. 다비치는 4일 몽환적인 분위기의 1차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힙합 가수 주석이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주석은 4일 오전 1시에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석은 2000년대 힙합 1세대 주자로 지난해 케이블 엠넷 '쇼 미 더 머니' 시즌 1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뮤직 어워드>

소시 "올해 뮤비상 언빌리버블"

싸이 3개부분 후보 올랐지만 수상 실패

걸그룹 소녀시대가 유튜브 스타 싸이를 눌렀다.

소녀시대는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다.

'아이 갓 어 보이' 뮤비는 함께 후보에 오른 싸이·레이디 가가·저스틴 비버 등의 뮤비를 제치고 올해 유튜브에서 가장 폭넓게 사랑받은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다. '아이 갓 어 보이' 뮤비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만 70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날 시상식에 소녀시대 멤버 대표로 참석한 티파니는 "믿을 수 없다. 유튜브는 나의 좋은 친구고 여러분들의 친구"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상은 받을 줄 몰랐다. 소녀시대들 대표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한국어로 "소원 사랑해요. 지금은 소녀시대"라고 외치며 소녀시대 멤버들과 팬클럽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 기록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최고 스타 싸이는 이날 시상식에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소녀시대와 함께 올해의 뮤직비디오상 후보에 오른 싸이는 올해의 아티스트상에 이어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트렌드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싸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이 뉴 유 워 트러블'에 유튜브 트렌드상을 내줬다. 이어 에미넴에게 밀려 올해의 아티스트상도 받지 못해 무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유튜브 뮤직 어워드는 올해 처음 신설된 시상식으로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 '유튜브 인기 돌풍' '유튜브 트렌드' '유튜브 도약' '유튜브 이노베이션'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렸다.

/장윤희기자 sswife@metroseoul.co.kr

PHOTO

출근길 패션도 화보. 전지현이 출근길에 런웨이 모델이 부럽지 않은 패션 감각을 선보여 화제다. 다음달 방송될 SBS '별에서 온 남자'로 1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그는 최근 경기 파주 탄현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방송사를 찾았다. 톱 여배우 천송이 역으로 출연하는 그는 극중 캐릭터에 어울리게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 이제 출근 패션 전쟁시대가 오는 건가요.

/유순호기자

모바일·웹 드라마 뜬다

'러브포텐' 등 줄줄이 공개

방송사를 벗어난 모바일과 웹 기반의 드라마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공개된 '러브포텐-순정의 시대'(사진)를 비롯해 하반기에만 SNS 드라마 '무한동력' 웹 드라마 '낯선 하루' CJ E&M의 'UHD 모바일 드라마 20's 스무살' 네이버 웹 드라마 '후유증' 등이 줄줄이 공개될 예정이다.

SNS·모바일·웹 드라마는 고정된 시청 플랫폼인 TV가 아닌 휴대용 기기로 대중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회당 분량이 짧은 편의성을 더해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드라마는 수로 이동 중이나 자투리 시간에 소비되는 특성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만 데이터 요금 문제는 제작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인피니트의 성열과 보이프렌드의 남자현을 주연으로 내세운 '러브포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총 12부작인 '러브포텐'은 매주 두 편씩 회당 10분 분량으로 공개된다. /장윤희기자

<제작진> <KBS>

"일방통행 불가" VS "방송 우선… 불가피"

issue&view

'전플명품' MC 교체 파문

KBS1 'TV쇼 진품명품'의 진행자 교체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녹화 현장에 고성이 오가고 녹화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사측과 제작진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4일 KBS 새노조의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며 양측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

이번 사안은 기존 윤인구(사진) 아나운서를 김동우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일반적인 진행자 변경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1일 제작진 전원이 교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KBS는 "MC 교체와 관련해 제작진과의 의견차가 있어 일단 CP와 팀장에게 연출권을 맡긴 상황이고 MC는 김동우 아나운서가 맡아 녹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방송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3일 정상방송이 아닌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내보냈다.

4일 열린 결의대회에 제작진을 대표해 참석한 정혜경 PD의 말을 들어보면 사측이 결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상식적으로 배소할 수 있는 의견차를 왜 좁히지 않았는 지 의문이 생긴다.

정 PD는 "10월 21일 발령받아서 왔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MC 사전이 발발됐다. 지난 주 금요일(1일) '6시 내고향'으로 이동하라고 통보 받았다. 저는 녹화도 못했고 세트 구경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MC 교체는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일방통행은 불가하다. 제작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녹화 준비를 했다. 감정위원들은 이 분위기 속에서 녹화하기 힘들다고 했고, 그래도 제작진은 설득했다. 그런데도 녹화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PD의 말처럼 제작진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정 진행자 선정이라는 결과의 문제가 아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KBS는 MC의 출연자 선외 하지와 관련해 유독 많은 잡음을 빚어 왔다. 김미화·김제동 윤도현의 프로그램 하차, JYJ의 음악방송 출연 및 제주 7대 경관 관련 방송 출연취소 등이 그랬다.

그럴 때마다 KBS의 설명은 한결 같았다. "출연자 섭외와 선정은 제작진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KBS는 제작진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제자리에 서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 제일 앞에 서 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 자리에 서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너무 특별하게 돼버려 마음이 아팠다"는 정 PD의 말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47화 글·그림 이기

리디북스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요즘 핫한 정우 스크린 공략

'붉은 가족'서 간첩 열연

요즘 가장 핫한 스타로 떠오른 정우(사진)가 안방극장에서의 인기 여세를 몰아 스크린 공략에 나선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응답하라 1994'로 '정우앓이'를 일으킨 데 이어, 6일 개봉될 영화 '붉은 가족'으로 영화 팬들을 찾는다. 이 영화는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작품이다.

드라마에서 쓰레기라는 별명의 캐릭터를 맡아 무심한 듯하면서 자상한 경상도 남자로 활약하고 있는 정우는 이번 영화에서 고정간첩 김재홍을 맡아 강인함과 따뜻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한다.

4일 공개된 영화 스틸에서 정우는 헐렁한 복고풍 의상의 드라마 속 모습과 달리 북한군 제복을 입은 각 잡힌 면모를 드러내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이 영화는 행복하게 위장한 겉모습과 달리 위험한 비밀 활동으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고정간첩 가족 진달래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6회도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화제몰이를 시작했다. /박란희기자 [illegible]

런던한국영화제 강우석 감독 특별전 개최

런던한국영화제에 강우석(사진) 감독 특별전이 개최된다.

10~15일 런던국립영화학교, 주영한국문화원 등과 주요 극장에서 열리는 강우석 감독 특별전에는 '투캅스' '공공의 적' '실미도' '강철중' '이끼' '전설의 주먹' 등 강 감독의 대표작이 상영된다. 강 감독은 특별전 및 한국 감독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강 감독은 자신의 대표작에 출연한 설경구와 함께 12일 런던에서 무대인사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또 현지 영화전문가들과 세계시장 속 한국 영화의 미래 포럼, 영국국립영화학교 영화학과 석사생들과 강우석 감독 마스터클래스 등에 참석한다.

/유순호기자

박병호 올해도 '가을 영웅'

2년 연속 프로야구 MVP 수상 '역대 네번째' -신인왕 이재학 뽑혀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27)가 2년 연속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하며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박병호는 4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시상식에서 유효 투표 수 98표 중 84표를 얻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타격 1위 이병규(LG·8표), 다승 공동 1위 배영수(삼성·5표)와 크리스 세든(SK·1표)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2년 연속 MVP 수상은 역대 네 번째다. 선동열(KIA 감독·1989~90년), 장종훈(한화 코치·1991~92년), 이승엽(삼성·2001~2003년) 등 프로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스타들만이 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병호는 올 시즌 37홈런 117타점 91득점, 장타율 0.602 등 공격 부문에서 4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됐다. 그는 처음 풀타임으로 뛴 지난해 31홈런 105타점, 장타율 0.561 등 공격 3관왕에 오르며 생애 첫 MVP를 받았다.

풀타임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올해 투수들의 강력한 견제가 예상됐지만 박병호는 모든 부분에서 지난해 성적을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해 삼진 111개, 볼넷 73개를 기록했던 그는 올해 삼진 96개, 볼넷 92개로 월등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LG 트윈스에 입단한 후 만년 유망주에만 머물던 그를 최고의 타자로 조련한 당시 넥센 김시진(현 롯데) 감독은 "이대호·추신수와 비슷한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며 그를 팀의 4번 타자로 중용했다.

박병호는 "부담 속에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내려고 노력한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MVP 상금 2000만원과 타격 타이틀 상금 총 1200만원 등 이날 시상식에서 3200만원을 받았다.

유희관(27·두산), 이재학(23·NC), 나성범(24·NC)이 경쟁한 신인왕 부문에서는 이재학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0승5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8을 기록한 이재학은 총 98표 중 77표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4일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MVP·최우수 신인선수 및 각 부문별 시상식에서 MVP를 차지한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오른쪽)와 신인왕을 차지한 NC 다이노스 이재학이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볼트 "치킨너깃만 먹고 베이징올림픽 3관왕"

소문난 치킨 마니아인 우사인 볼트(27·자메이카)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치킨 너깃만을 먹고 3관왕을 차지했다는 비화를 공개했다.

볼트는 자서전 '번개보다 빠른' 출간에 앞서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음식이 너무 특이해서 먹지 않았다. 아침으로 20개들이 치킨 너깃 두 상자, 점심으로 한 상자, 저녁으로 두 상자씩 매일 먹었다"고 말했다.

열흘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치킨 너깃을 하루에 100개씩 총 1000개를 먹었다는 그는 "치킨 너깃 먹어치우기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트는 당시 육상 남자 100m·200m·400m 계주 등 3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유순호기자

FA 선수 등급제 고려할 만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올해 자유계약(FA) 시장에는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쏟아져나와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거취를 놓고 최대 관심을 받는 선수는 롯데 포수 강민호, SK 와이번스 2루수 정근우, KIA 타이거즈 외야수 이용규다. 특정 선수는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몸값 거품 조짐까지 보인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대박을 터트리는 것은 아니다. 현행 FA 제도하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상제도 때문이다. 보상기준을 낮췄지만 FA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은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특급 또는 A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당연히 보상선수를 감수한다. 그러나 B급 이하의 선수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보상선수를 감수하는 구단은 없다. 그래서 현행 FA 시장은 몇몇 특급 혹은 A급 선수들의 잔치에 불과하다. 그나마 신생구단 NC 다이노스(내년에는 KT 위즈)가 있어 B급 선수들의 처지가 나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반짝 잠재도 향후 몇 년에 불과할 것이다. 이참에 FA 기한(고졸 9년, 대졸 8년)을 줄이고 보상기준을 대거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FA 선수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은 역대 성적 등을 토대로 A~C급으로 선수들의 등급을 나누고 보상 기준도 단계별로 차이를 둔다. 예를 들어 C급 선수들은 연봉 및 선수 보상은 없다.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볼 제도가 아닌가 싶다.

/XTM 야구전문기자

김신욱 홍명보호 재승선…박주영은 빠졌다

'장신 골잡이' 김신욱(25·울산·사진)이 홍명보호 원톱 스트라이커로 발탁됐다.

홍명보 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위스(15일)와 러시아(18일)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최근 공격진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박주영 카드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18골을 터트리며 득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신욱을 선택했다.

김신욱은 7월 동아시안컵에서 홍명보호에 처음 승선했지만 무득점에 그쳤고, 이후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최근 K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대표팀 재승선의 기쁨을 맛봤다.

그러나 소속팀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박주영(아스널)은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한편 대표팀은 12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스위스전을 치른 뒤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로 출국해 러시아전을 준비한다.

/장병호기자 yaw@